

개인의 삶에서 당대 역사를 읽는다

국내외 인물의 자서전·평전·전기 등 새롭게 주목받아

자서전, 평전, 전기 등 전기물 분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외 인물의 역사적 삶을 그린 전기물이 속속 출간되고 있는가 하면, 몇몇 출판사에서는 이 분야의 대형 기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재야 대통령, 박정희의 천적”으로까지 불렸던 장준하의 평전 《재야의 빛 장준하》(박경수 지음, 해돋이)와 추모문집 《민족혼, 민주혼, 자유혼》(장준하선생추모문집간행위원회, 나남)이 출간됐고, 비슷한 시기에 《박정희의 사상과 행동》(최영 지음, 현음사)이 나와 눈길을 끈다. 청산리대첩의 주역인 홍범도 장군의 전기인 《홍범도 장군》(장산)은 국내외 자료와 연구논문, 장군이 손수 쓴 일기책, 붉은 빨치산 시절의 이력서, 사망증명서 등 꼼꼼한 자료수집과 어렵사리 구한 사진 등이 돋보인다. SF 소설의 대가인 아이작 아시모프가 일기처럼 써 내려간 《아이작 아시모프 자서전》(이미경 옮김, 작가정신)과 프랑스의 대작가 앙드레 말로의 평전인 《앙드레 말로》(장 라쿠튀르 지음/김화영 옮김, 현대문학)도 출간됐다.

고급한 읽을거리

한편, 몇몇 출판사가 대형 전기문학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다는 소식도 반갑게 들린다. 한길사(대표 김언호)는 ‘로로로 시리즈’와 ‘위대한 한국인 평전 시리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로블트 출판사의 세계적인 평전 시리즈인 ‘로로로 시리즈’를 번역, 올해 9월까지 1차분 30권을 출간할 계획이다. 또 다른 기획인 ‘위대한 한국인 평전 시리즈’의 경우 98년까지 3년에 걸쳐 100권을 발간할 계획인데, 사상가, 문학가, 음악가, 미술가, 정치가, 과학자, 종교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에 주목받지 못했거나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고급한 읽을거리이면서 흥미로운 서술과 사진을 풍부하게 수록, 새로운 감각의 평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민족사(대표 윤재승)의 경우, 한국불교 정신사에 깊은 영향을 끼친 고승들의 삶과 사상을 담아낼 ‘한국의 고승’ (전 30권)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다. 한국 고승들을 두루 아우른 책은 찾기 힘들고 있다 하더라도 사

최근 들어 한 인물의
자서전이나 평전 등 전기물
분야의 책들이 출간되는가 하면
전기문학 시리즈를 기획하는
출판사들이 잇따라, 본격 전기문학이
자리잡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전에세이 등이 베스트
셀러화하는 현상은 전기물에 대한
일반독자의 관심이 결코 적지
않으리라는 예측도 가능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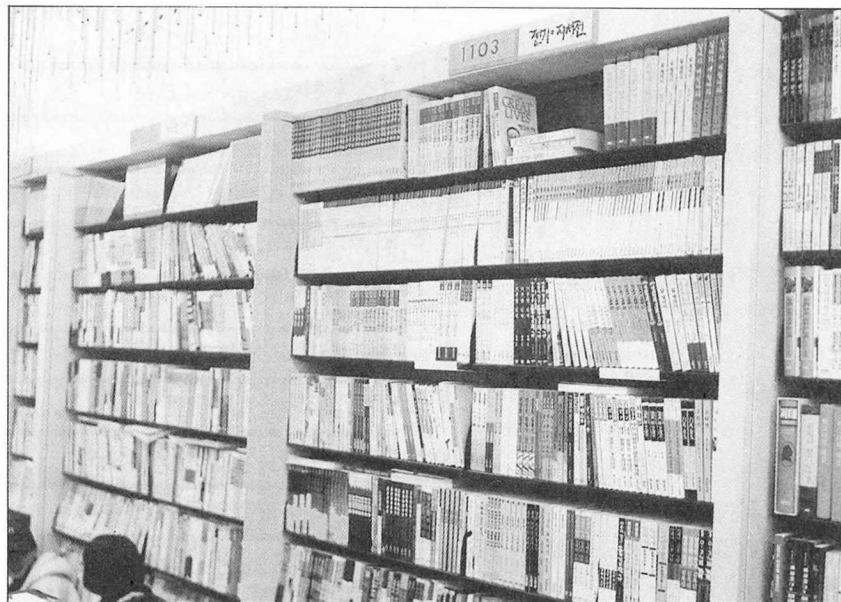
실과는 거리가 먼 소설류나 어려운 학술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 보다 대중적이면서도 사실에 충실한 평전을 출간한다는 것이 기획의도다.

윤사장은 최근의 전기물에 대한 출판인들의 관심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면서 “국내 전기문학 시장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미개척 분야이므로 가능성이 많다”고 내다본다. 이는 지금까지 전기문학의 전범이 될 만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우리에게도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굳혀 오랫동안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전기물이 있다. 백범 김구의 《백범일지》는 그 대표적인 것이고 이광수의 《도산 안창호》는 일제시대 출간된 이래 지금까지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으며, 고려대 총장을 역임한 김준엽의 자서전 《장정》(나남)은 82년 첫 권이 출간된 이래 현재 4권까지 출간됐으며 1,2권의 경우 10쇄 이상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전기문학작품들도 이미 많이 번역 소개돼 독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포이에르 바하나 막스 베버, 발터 벤야민, 미셸 푸코 등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을 밝힌 전기는 물론이고 쿨리 부인, 아인슈타인 등 과학자와 피카소, 반 고흐 등 예술가들의 전기도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굳힌 경우가 많다.

외국의 경우, 전기문학 작가가 따로 있을 만큼 전기물의 대상도 다양하고 질적인 수



외국에선 이미 확고한 장르로 자리잡은 ‘전기물’에 대한 기획도 조금씩 시도되고 있다.

준도 높다. 지난해 미국 베스트셀러 목록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전기 《희망의 문턱을 넘어》, 빌게이츠의 자서전 《미래로 가는 길》, 다이빙 선수 그렉 루이스의 회고록 《수면을 가르며》, 전 국방장관 로버트 맥나마라의 《회고》 등 전기물들이 수위를 다투고 있어 독자들의 인기를 증명한다.

상업적 성공 넘어선 사회적 의미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대부분의 전기물들은 일부 정치가나 유명 기업인의 홍보용으로 ‘제작’된 것이거나 신화와 사실이 뒤섞여 있는 아동용 위인전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대상 인물이 한정돼 있는 데다 사실의 기록이 보다는 과장, 왜곡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

간혹, 객관적인 자료에 충실한 인물 연구서도 없지 않았지만 지나치게 학술적이어서 일반 대중들이 읽기에는 힘든 형편이라는 지적이다. 독자들의 감각과 기호를 따라가지 못한 편집도 우리나라 전기물들이 독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문예출판사의 전병석 사장은 “사회 전체적으로 사실적인 기록을 중시하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지적 풍토가 형성되지 못했고, 출판사들이 상업적 이익에만 급급하여 독자들의 저급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내용의 전기물을 양산, 전기물의 수준을 떨어뜨린 것도 우리 전기문학의 발전을 가로막은 요소”라고 지적한다. 문장력과 취재능력, 판단력과 분석력을 아울러

가진 전문필진이 없는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기획을 준비중인 출판사들은 기획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자전에세이나 개인사를 밝힌 책들에 쏠리는 독자들의 관심은 전기물에 대한 관심이 결코 적지 않으리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는 것. 우리 사회 전체의 높아진 문화·교양수준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고급한 읽을 거리의 욕구를 밀반출한다. 몇 년에 걸쳐 출판계에 ‘문화유산 답사’ 바람을 일으킨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성공적인 선례는 제대로 만들기만 하면 전기문학의 선풍도 가능함을 예측케 하는 좋은 예로 꼽힌다.

아울러 최근 들어 문학, 사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적인 학문방법으로 훈련받은 젊은 학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점은 전기문학 활성화를 위한 큰 과제로 꼽혔던 필진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도 있다는 데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전기문학 활성화를 기대하는 출판인들은 상업적 성공여부를 떠나 전기물이 한 개인 삶에 대한 객관적 기록인 동시에 당대의 사회상과 역사를 밝혀주는 기록으로서 사회역사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대로 된 전기물의 부흥은 우리 사회의 지적·문화적 자산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박남정 기자